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2 pp. 152-162,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12.152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생의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현주[1], 김지현[2*]
[1]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2]광주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Gri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ti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Hyun-Ju Kim[1], Ji-Hyun Kim[2*]
[1]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2]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1년 1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곳의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 175명이었다.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각각 3.13점, 3.42점, 3.59점, 3.30점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은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릿은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긍정심리자본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자본이었으며 설명력은 62%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강화하고, 긍정적 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affect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Data was collected between January 20 to June 25, 2021. Totally, 175 students in the 3rd and 4th grade of two collages located in U and D cities, were enrolled for the study. Data analysis was achieved by applying the SPSS/WIN 21.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verage scores obtained for the gri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were 3.13 points, 3.42 points, 3.59 points, and 3.30 points, respectively, out of a total of 5 poi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gri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Gri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herea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was determined to b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62%.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the necessity to develop and apply an educational program that enhances th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ith grit and clinical practice, and improves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eywords : Nursing, Positive, Psychological, Clinical, Adjustment

본 논문은 2021년도 춘해보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Kim(Gwangju Univ.)
email: white5743@hanmail.net
Received August 5, 2021 Revised September 10,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사회적,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며, 청소년 시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해야한다[1].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시기까지 대학입시를 목표로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경험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2]. 특히, 간호대학생은 기본적인 소양과 간호학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전문지식 습득과 함께 다양하게 변화하는 임상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한다. 하지만 임상실습 및 취업경쟁, 과중한 학업량 및 국가고시 합격 부담감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2,3]. 따라서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기를 배양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그릿이 주목받고 있다[4,5]. 그릿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일관된 끈기와 열정으로 정의되며[6], 그릿(Grit)이라는 원어 그대로 통용된다. 특히 그릿은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4], 학습동기 요인과 관련이 있다[5].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중도탈락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그릿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 적응의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7].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주의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 역량 및 가치를 말한다[8]. 긍정심리자본은 선행연구를 통해 각 하위요소와 그릿과의 관계를 추측해볼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과 그릿이 연관성이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9], 대학생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 긍정심리자본은 훈련과 연습으로 개발될 수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긍정적 감정을 잘 활용해 학업 및 직업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10].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 긍정심리자본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학은 실무중심의 학문으로, 간호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호수행능력을 익혀야하며, 이론적 지식과 임상실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11].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의 비판적사고, 분석적사고, 문제해결능력과 함께 간호사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3]. 그러나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경험하는 부담감과 스트레스, 미래의 임상현장에서의 겪게 될 압박감 등으로 인해 실습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3,12-14].

대학생활적응은 대학과 학과의 환경에 만족하며, 학업적 성취와 대인관계 형성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이러한 대학생활적응은 학생과 대학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대학에 적응을 잘 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성공, 기술발전, 새로운 습관의 습득, 개인의 행복 및 심리적 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6]. 특히, 높은 취업률을 고려하여 간호학 전공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적성에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간호대학생들은 다른 전공 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12]. Go [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을 높였고, 개인의 심리상태인 긍정심리자본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대학생활스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이 서로 상반되어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지만, Yoo [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나 향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17],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등[4]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어왔다. 특히 간호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는 신입생부터 적응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학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처럼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를 함께 고려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고찰할 수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다. 간호대학생의 적응이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고, 향후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질적인 향상과 관계가 있으므로[4],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변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U광역시와 D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간호학생으로 1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4학년을 대상자로 하였고, 연구자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효과크기 .15로 산출했을 때 , 설명변수 20개일 때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157명이었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완전한 응답 설문지를 제외한 17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그릿

본 연구에서 그릿은 어려운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을 의미하며[6], Duckworth 등[6]이 개발한 도구를 Lee와 Sohn [1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력의 꾸준함 6문항, 관심의 일관성 6문항 등 2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Duckworth 등[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3-.81이었으며, Lee와 Sohn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9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2이었다.

2.3.2 긍정심리자본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목표달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 심리역량 및 가치를 의미하며[8], Luthans 등[8]에 의해 개발된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Kim [19]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효능감 6문항, 희망 6문항, 복원력 6문항, 낙관주의 6문항 등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Luthans 등[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9, Kim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1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 ch's α=.93이었다.

2.3.3 임상실습 만족도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는 Cho와 Kang [20]이 개발한 측정도구와 Lee [21]가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 도구를 Lee 등[22]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습교과 3문항,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 등 6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와 Kang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3이며, Lee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4, Lee 등[2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5이었다.

2.3.4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은 대학과 학과에 만족하고, 사회생활적응과 심리적인 문제 대처를 적절히 하는 것을 의미하며[15], Jeong과 Park [23]이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 등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g과 Park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다.

2.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C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1044386-A-2020-02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었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자의 실습지도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제외하고, 1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학년, 4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설명문과 동의서에 대한 설명은 수업시간 이외에 별도로 30분간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0-20분이었고, 자발적 참여를 위해 연구자가 퇴실한 후 개별 봉투에 동의서, 설문지 및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완료된 동의서와 설문지를 대상자가 직접 밀봉하여 지정된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제출하였고, 연구자는 설문 완료 하루 뒤에 수거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자의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75명으로 남학생 21.7%, 여학생 78.3%이었고, 19~24세가 62. 9%로 가장 많았다. 학년별 분포는 3학년 55.4%, 4학년 44.6%이었고, 학점은 3.0~3.5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실습기간은 22개월이 40.6%이었다. 간호학과 입학 동기는 '졸업 후 높은 취업률'이 49.4%로 가장 많았다. 동아리 활동 여부는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6.3%로 많았다. 한 학기에 지도교수와의 상담은 1회가 58.3%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없다'가 67.4 %, 주거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65.7%, 가정 경제상태는 중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8.3%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만족 52%, 보통 42.9%, 불만족 5.1%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는 만족 67.4%, 보통 28%, 불만족 4.6%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정도

모두 5점 척도로 그릿은 평균 3.13±0.42점으로 나타났고, 긍정심리자본은 평균3.42±0.47점이었다. 실습만족도는 평균점수 3.59±0.53점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은 평균점수 3.30±0.46점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그릿은 학업성적(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에서 '3.0-<3.5'군이 '<3.0', '≥3.5'군보다 그릿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은 나이(p=.017), 학업성적(p=.003), 대학생활만족도(p<.001), 전공만족도(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에서 학업성적 '3.0-<3.5'와 '≥3.5'군이 '<3.0'군보다 긍정심리자본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 군 보다 긍정심리자본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나이(p=.045), 학년(p=.001), 대학생활만족도(p<.001), 전공만족도(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에서 대학생활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만족'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성적(p=.009), 종교(p=.034), 대학생활만족도(p<.001), 전공만족도(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에서 학업성적 '3.0-<3.5'와 '≥3.5'군이 '<3.0'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8 (21.7)
	Female	137 (78.3)
Age (year)	19-24	110 (62.9)
	≥25	65 (37.1)
Grade	3rd	97 (55.4)
	4th	78 (44.6)
Grade point average	<3.0	49 (28.0)
	3.0-<3.5	65 (37.1)
	≥3.5	61 (34.9)
Period of clinical practice (months)	22	71 (40.6)
	11	17 (9.7)
	8	30 (17.1)
	5	18 (10.3)
	2	39 (22.3)
Motivation for selection a major*	Aptitude	60 (34.5)
	High employment	86 (49.4)
	Recommendation and others	28 (16.1)
Extracurricular activities	Yes	59 (33.7)
	No	116 (66.3)
Number of counselling with professors in a semester	0	21(12.0)
	1	102(58.3)
	More than 2	52(29.7)
Religion	Yes	57 (32.6)
	No	118 (67.4)
Residence	With family	115 (65.7)
	Dormitory and others	21 (12)
	Live apart from parents	39 (22.3)
Status of economic level	Higher	7 (4.0)
	Middle	137 (78.3)
	Lower	31 (17.7)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Dissatisfied	9 (5.1)
	Moderate	75 (42.9)
	Satisfied	91 (52.0)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ied	8 (4.6)
	Moderate	49 (28.0)
	Satisfied	118 (67.4)

Table 2. Level of Grit, Positive Psychology Capital,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175)

Variables	Mean±SD	Min~Max
Grit	3.13±0.42	1.25-5.00
Positive psychology capital	3.42±0.47	2.00-5.0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3.59±0.53	2.00-5.00
Adjustment to college life	3.30±0.46	2.00-5.00

Table 3. Differences of Grit, Positive Psychology Capital,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Grit		Positive psychology capital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djustment to college life	
		Mean (SD)	t/F(*p*)	Mean (SD)	t/F(*p*)	Mean (SD)	t/F(*p*)	Mean (SD)	t/F(*p*)
Gender	Male	3.16±0.37	0.44 (.659)	3.40±0.47	-0.37 (.716)	3.63±0.55	0.51 (.612)	3.29±0.44	-0.21 (.836)
	Female	3.12±0.44		3.43±0.47		3.58±0.53		3.31±0.46	
Age (year)	19-24	3.14±0.42	0.44 (.660)	3.49±0.44	2.41 (.017)	3.66±0.51	2.02 (.045)	3.34±0.43	1.54 (.124)
	≥25	3.11±0.43		3.31±0.49		3.49±0.55		3.23±0.50	
Grade	3rd	3.11±0.38	0.67 (.507)	3.42±0.48	0.05 (.959)	3.48±0.55	3.47 (.001)	3.31±0.43	0.84 (.838)
	4th	3.16±0.47		3.42±0.46		3.74±0.46		3.30±0.48	
Grade point average	〈3.0[a]	3.06±0.37	6.10 (.003) a〈b, c〈b	3.23±0.45	5.93 (.003) a〈b,c	3.56±0.59	0.14 (.871)	3.14±0.46	4.82 (.009) a〈b,c
	3.0-〈3.5[b]	3.27±0.51		3.52±0.48		3.60±0.52		3.40±0.48	
	≥3.5[c]	3.04±0.30		3.47±0.44		3.61±0.49		3.32±0.41	
Period of clinical practice (months)	22	3.14±0.41	0.36 (.835)	3.42±0.49	0.20 (.938)	3.46±0.58	2.39 (.053)	3.29±0.51	0.07 (.990)
	11	3.11±0.40		3.40±0.45		3.69±0.26		3.34±0.44	
	8	3.14±0.36		3.44±0.40		3.57±0.49		3.33±0.36	
	5	3.21±0.39		3.50±0.50		3.74±0.59		3.30±0.41	
	2	3.10±0.52		3.38±0.50		3.74±0.48		3.31±0.48	
Motivation for selection a major	Aptitude	3.11±0.45	1.50 (.226)	3.47±0.48	1.80 (.334)	3.64±0.52	1.19 (.306)	3.35±0.48	0.82 (.442)
	High employment	3.11±0.41		3.37±0.46		3.53±0.51		3.30±0.43	
	Recommendation and others	3.26±0.40		3.49±0.47		3.68±0.60		3.22±0.47	
extracurricular activities	No	3.10±0.40	-0.66 (.510)	3.44±0.49	0.25 (.804)	3.54±0.59	-0.86 (.390)	3.28±0.46	0.89 (.377)
	Yes	3.15±0.43		3.42±0.46		3.62±0.50		3.35±0.46	
Number of counselling with professors in a semester	0	3.05±0.48	0.95 (.388)	3.23±0.51	2.20 (.114)	3.60±0.65	1.80 (.169)	3.20±0.48	0.78 (.460)
	1	3.12±0.39		3.47±0.45		3.65±0.51		3.31±0.45	
	More than 2	3.19±0.45		3.41±0.48		3.48±0.51		3.34±0.47	
Religion	No	3.12±0.40	-0.64 (.526)	3.40±0.47	-0.90 (.370)	3.56±0.52	-1.10 (.274)	3.25±0.44	-2.13 (.034)
	Yes	3.16±0.47		3.47±0.46		3.66±0.54		3.41±0.48	
Residence	With family[a]	3.08±0.39	3.75 (.025) a〈c	3.38±0.45	2.31 (.102)	3.56±0.52	2.33 (.101)	3.29±0.45	0.42 (.659)
	Dormitory residence and Others[b]	3.13±0.45		3.42±0.50		3.50±0.56		3.27±0.52	
	Live apart from parents[c]	3.29±0.47		3.56±0.50		3.75±0.53		3.36±0.46	
Status of economic level	Higher	3.96±0.56	2.44 (.090)	3.35±0.73	0.10 (.902)	3.30±0.74	1.38 (.254)	3.13±0.80	0.62 (.541)
	Middle	3.12±0.43		3.43±0.47		3.62±0.54		3.32±0.46	
	Lower	3.27±0.34		3.42±0.42		3.54±0.40		3.28±0.35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Dissatisfied[a]	3.04±0.52	0.97 (.381)	3.09±0.54	9.82 (〈.001) a〈c,b〈c	2.86±0.56	14.04 (〈.001) a〈b〈c	3.11±0.63	8.63 (〈.001) b〈c
	Moderate[b]	3.09±0.34		3.30±0.38		3.52±0.44		3.17±0.35	
	Satisfied[c]	3.17±0.47		3.56±0.48		3.73±0.53		3.43±0.48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ied[a]	3.01±0.54	1.20 (.303)	3.08±0.55	7.38 (.001)	2.81±0.54	19.41 (〈.001)	3.03±0.68	6.460 (.002)
	Moderate[b]	3.07±0.32		3.27±0.39		3.40±0.44		315±0.35	
	Satisfied[c]	3.16±0.45		3.51±0.47		3.73±0.49		3.39±0.46	

3.4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그릿은 긍정심리자본(r=.42, p<.001), 임상실습 만족도(r=.16, p=.032), 대학생활적응(r=.37,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긍정심리자본은 임상실습 만족도(r=.58, p<.001), 대학생활적응(r=.78,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r=.45,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와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활만족도와 전공만족도는 '만족' 항목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가변수로 변환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선형성 및 표준화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상에서 정규성과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고, Dubin Watson 통계량은 2.08로 2에 근접하여 독립성을 충족하였다. 공차가 1.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또한 1.0으로 10을 넘지 않았으며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도 0.8 미만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분석 결과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39.34, p<.001),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자본(β=.73, p<.001)이었으며 설명력은 62.0%이었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s among Grit, Positive Psychology Capital,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175)

Variables	Grit	Positive psychology capital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djustment to college life
Grit	1			
Positive psychology capital	.42 (<..001)	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16 (=.032)	.58 (<.001)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37 (<.001)	.78 (<..001)	.45 (<..001)	1

Table 5. Factor influencing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N=175)

Variables	B	SE	β	t	p	R^2	Adjusted R^2	F(p)
(constant)	0.71	.23		3.09	.002	.62	.61	39.34 (<.001)
Positive psychology capital	0.73	.06	.75	11.45	<.001			
Grit	0.53	.06	.05	.92	.36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01	.06	-.13	-.20	.84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Moderate	-.05	.06	-.06	-.96	.34			
Dissatisfied	.11	.15	.05	.73	.47			
Satisfaction with major*								
Moderate	-.03	.06	-.03	-.51	.61			
Dissatisfied	-.12	.16	-.06	-.78	.44			

*Reference group= Satisfied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그릿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13±0.42점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04점보다 높은 수준이었고[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4,7,24]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학업, 진로 및 생활에 있어서 부모 의존적인 특성이 강한 고등학생에 비해 간호대학생은 직업적 보장이 확실하여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방향이 확고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2]. 그릿은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위한 꾸준하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그릿 수준이 높은 사람은 목표성취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6]. 간호대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과중한 학업량과 직면하게 되고,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므로[2,3], 4년간의 학업을 잘 완수하고 나아가 졸업 후 신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간호학과 재학생으로서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그릿 수준을 높임으로써 학업적응과 장기적 성취 및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등 긍정적인 요소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18,24]. 그 방안으로 그릿을 발달시킬 수 있는 문화, 예술, 스포츠, 종교 영역 등을 포함한 여가활동이나 특별활동들을 비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하여[9], 그릿 수준을 향상시키고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미래 간호사의 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42±0.47점으로 중간 수준을 보였다.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주의 등 네 가지 요소의 통합적 개념인 긍정심리자본은 처해진 상황에서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고, 개발과 노력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8,10], 그 수준이 높을 때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성과 및 직업성과를 긍정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10]. 특히 그릿과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9],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의 적용과 대학생활 중 여러 상황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통한 긍정심리자본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주의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척도에 평균점수 3.59±0.53점으로 Kwon과 Kim [25]의 3.32점, Kim과 Lee [26]의 3.36점과는 차이를 보였고, 나이, 학년,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임상실습 만족도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다수의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26,27].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직업정체감 및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관과 정적 상호 관련이 있으므로[25,27], 임상실습에 임하는 태도나 영향력이 학업에서는 물론이고 졸업 후 올바른 가치관과 자질을 갖춘 간호사의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교육 방법에 이르기까지 개선되고 있으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고 역량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습지도 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과제물과 새로운 실습교육 프로토콜 개발 등 임상실습에 대한 기관, 교수 및 학생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다각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5점 척도에 평균점수 3.30±0.46점으로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 [17]의 연구에서 나타난 3.39와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14점[4], 다른 도구로 측정한 간호대학생의 3.24점[2]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수준의 차이 없었으나 2, 3학년보다 4학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Yoo [2]의 연구 및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Park과 Ahn [4]의 연구결과와의 차이를 토대로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초점을 둔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학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체적인 진로선택과 직결되며, 졸업 후 기관 적응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여 업무 수행과 이직률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학생활적응 문항을 토대로 하여 전공교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대학생활적응은 그릿, 긍정심리자본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릿은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고, 긍정심리자본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릿이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직 · 간접 영향 요인[4]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고[9],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적응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1,19] 긍정적 정서가 임상실습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인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2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그릿 및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대학생활적응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긍정심리자본이었으며,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지속성과 행복감, 진로선택에 작용하고 나아가 사회 적응으로도 이어지는데[23],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성패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 향상될 수 있는 긍정심리자본을[1,10]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소 중 '자기효능감'과 '희망'은 부모, 친구, 교수의 지지를 통해 강화되고 이는 대학생활적응으로 이어지므로[1], 자기효능감과 희망을 심어줌과 동시에 사회적인 지지까지 고려한 중재가 필요하며, 대학 차원이나 학과에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나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안정적인 정서를 제공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낙관주의'를 경험하도록[1]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그릿은 대학생활적응과의 인과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그릿이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Park과 Ahn [4]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인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공 이론과 임상실습을 모두 경험한 3, 4학년으로, 그릿이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년별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그릿과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므로 결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인과관계 또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임상실습 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임상실습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는 [28,29] 상반된 맥락을 보인다. 본 연구는 COVID -19로 인해 대상자가 교내실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던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실습기관과 환경이 반영되므로 다양한 환경의 대상자를 통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질 높은 실습교육은 대학생활적응의 중요한 요인이므로[30] 실습기관 및 환경, 실습지도 등 실습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을 포함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 및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그릿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릿,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고, 그릿은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 긍정심리자본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자본이었고 설명력은 61%이었다. 따라서 그릿, 임상실습 만족도를 강화하고 긍정심리자본을 개발 및 적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수의 대학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그릿, 임상실습 만족도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학교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 등의 중재 프로그램 및 임상실습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향상을 위해 4가지 하위요소인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J. L. Go,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life adaptation variable investigation: centering arou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career self-efficacy",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2, pp.315-344, 2019. DOI: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2.315

[2] K. H. Yoo, "A study on th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3, pp.269-278, 201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3.269

[3] H. J. Kim, H. S. Song, "Th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troductiory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 No.2, pp.74-84,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2.74

[4] I. S. Park, S. S. Ahn,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grit of new students of nursing college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Vol.13, No.4, pp.1-12, 2019. DOI: https://doi.org/10.18014/hsmr.2019.13.4.01

[5] A. L. Duckworth, P. D. Quinn, M. E. Seligman, "Positive predictors of teacher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4, No.6, pp.540-547, 2009. DOI: https://doi.org/10.1080/17439760903157232

[6]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6, pp.1087-1101,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7] E. Jeong, M. R. Jeo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9, pp.309-317,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9.309

[8] F. Luthans, C. M. Youssef, B. J. Avolio, Psycholo- 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p.2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3-25

[9] H. S. Choi, S. Y. Yang,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al Psychology,* Vol.31, No.2, pp.105-123, 2018.

[10] M. Seligman,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 on, and positive therap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nd ed, p.848, New York: Wiley, 2002, pp.3-12

[11] H. Bektaş, N. Terkes, Z. Özer, "Stress and ways of coping among first year nursing students: A Turkish perspective", *Journal of Human Sciences,* Vol.15, No.1, pp.319-330, 2018. DOI: https://doi.org/10.14687/jhs.v15i1.4626

[12] L. J. Labrague, D. M. McEnroe-Petitte, D. Gloe, L. Thomas, I. V. Papathanasiou, K. Tsaras, "A literature review on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ental Health,* Vol.26, No.5, pp.471-480, 2017. DOI: https://doi.org/10.1080/09638237.2016.1244721

[13] S. Gomathi, S. Jasmindebora, V. Baba, "Impact of stress on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ve Research and Advanced Studies,* Vol.4, No.4, pp.107-110, 2017.

[14] K. H. Baek, M. O. Cho,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6, pp.363-371,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6.363

[15] R. W. Baker,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31, No.2, pp.179-189, 1984.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1.2.179

[16] A. Yüksel, F. Öz, "The evaluation of the psycho-education program's effectiveness based on problem solving about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the universit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Lingual, Social and Educational Sciences,* Vol.4, No.2, pp.242-262, 2018.

[17] Y. M. Han, "A study on the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5, pp.367-374,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5.367

[18] S. Lee, Y. W. Sohn, "What are the strong predic- tors of academic achievement? deliberate practice and gri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0, No.3, pp.349-366, 2013.

[19] J. S. Kim,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of college students on job search self-efficacy and employment-preparation behavior",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Vol.18, No.2, pp.43-67, 2015.

[20] K. J. Cho, H. S. Kang,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4, No.2, pp.63-74, 1984.

[21] S. E. Lee,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7, No.2, pp.333-348, 2001.

[22]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 -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No.2, pp.219-231, 2004.

[23]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 -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1, No.2, pp.69-92, 2009.
DOI: https://doi.org/10.17927/tkjems.2009.21.2.69

[24] M. R. Jung, E. Jeong,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an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6, pp.414-423,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6.414

[25] Y. E. Kwon, S. Y. Kim,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ng prospective graduates in nursing colleg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1, pp.80-88, 201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1.80

[26] K. E. Kim, B. Y.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an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0, pp.885-896,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885

[27] S. N. Lee, J. A. Kim,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ffectivity, self-leadership,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2, pp.125-136,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125

[28] S. A. Whang, "The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ego-resilience, and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6, pp.807-823, 2019.

[29] J. W. Lee, Y. S. Eo, "Effect of clinical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2, pp.125-134, 2013.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3.7.2.125

[30] J. H. Choi, M. J. Park,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method to evaluat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associat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7, pp.339-349,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7.339

김 현 주(Hyun-Ju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노인간호

김 지 현(Ji-Hyun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9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2021년 8월 :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21년 9월 ~ 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